

# 광주의 밤이 불안하다

광주의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 연일 터지는 강·절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연초부터 노래방·편의점 강도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경찰은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를 비롯기라도 하듯 동일범 소행으로 보이는 노래방 강도가 광주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하면서 치안 부재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 비웃는 강력범=25일 새벽 2시54분께 광주시 동구 H노래방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 주인 장모(57)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진 돈을 내놓으라"라고 협박했다. 이 남자는 비상벨이 울리자 그냥 달아났다. 장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장씨는 "용의자가 뺑모자를 쓰고 목이 긴 스웨터의 깃을 올려 얼굴을 가렸으며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

## 노래방·편의점·주택가 연일 강·절도 올들어 3천여건...작년보다 크게 늘어 경찰 움직임 노출·공조 수사도 안돼

지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노래방 강도 사건이 북구에서만 6건 등 모두 8건이 발생했다. 또 편의점 강도사건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2월 말 현재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강·절도 사건은 ▲강도 41건 ▲절도 3천132건 등 모두 3천173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60건에 비해 113건(3.7%) 증가한 것이다.

◇밤길 불안한 시민=강도가 기습을 부리면서 노래방 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광주시 쌍촌동 M노래방 업주 이모(여·46)씨는 "노래방 강도가 무서워 밤 시간에는 출입문을 잠가 뒀다가 손님이 오면 얼굴을 확

인하고 손님을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인지 요즘 손님도 하루 평균 6팀에서 2팀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1천400개의 노래방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850개. 광주시노래연습장협회 전영주(64) 회장은 "손님이 없는 데다 도우미 단속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업소들이 많다"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 노래방 강도까지 극성을 부려 노래방 업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시민들도 밤에 편의점 등을 찾거나 노상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

이다. 지난 24일 밤 11시35분께는 남구 백운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이모(여·44)씨가 10대 4명에게 폭행당하고 12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기기도 했다.

◇강력범 왜 못 잡나=경찰의 수사 상황과 움직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게 큰 원인이다. 강력범들은 외근 형사와 의경들의 방범순찰 시간을 교묘히 피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노래방 강도 사건은 지난해 12월 처음 북부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경찰서는 '남의 동네'일이었다. 관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공조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주체를 동부서로 남기고 현상금 500만원과 특진을 내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청 분리를 앞두고 광주시내 경찰들이 전담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근무강이 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편의점 6곳 턴 강도 스크린 경마 도박 중독자

### 남부경찰, 30대 검거

광주·전남 편의점을 공포에 떨게 한 범인은 스크린 경마에 전 재산을 날린 도박 중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 광주 남부경찰 형사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천 여명의 사람들 속에서 양모(39·서울 동작구 사당동·전과 5범)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S 편의점에서 흉기로 중업원을 위협, 17만 원을 빼앗는 등 광주·목포 등 6곳의 편의점에서 217만 원을 털었다. 범행 이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양씨는 6년 전 취업 사기로 구속 수감되면서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 출소 후 우연히 찾은 스크린 경마장은 모든 걱정을 잊게 하는 탈출구와 같았다. 화면 속에 펼쳐지는 경마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경마에 전 재산 3천만 원을 날렸

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지난해 12월 선원 모집 광고를 보고 목포에 내려갔다. 하지만 눈앞에 저꾸만 경마 화면이 아른거려 선금만 챙겨 들고 다시 광주의 스크린 경마장을 찾았다.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자 배팅을 계속하기 위해 편의점 강도로 돌변했다. 편의점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기 때문에 중업원들의 저항이 적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연고가 없어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그러나 광주 북구 두암동과 중흥동 편의점의 CCTV에 사진이 찍히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기 시작했다. 남구의 한 이발소 주인이 "CCTV에 나온 스포츠형 머리를 한 사람을 스크린 경마장에서 봤다"고 신고, 덩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크린 경마에 중독된 양씨가 교도소에서 도박금단증세(禁斷症勢)를 어떻게 견뎌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 나원침 (7086) 김장동



**광주선도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636 회대권!**  
\*행운한 4~5명만 혜택 받고 양!

수원선도서 피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광주 북구청 봄꽃 단장** "인형극과 함께하는 봄꽃축제(3월26일~4월2일)가 열리는 광주시 북구청 앞이 화사한 꽃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구청 광장에는 팬지 등 서양화 10만 본·철쭉 600 본·꽃꽂이 100점 등이 전시되고, 3층 회의실과 복도 등에는 숲 공예·실내조경 작품 등이 선보인다. 축제 기간엔 어린이 노래자랑·글짓기 대회·미술 공연·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마련된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정부와 관련 포털업체가 '음란물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음란물 노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에는 포털의 모니터 강화 뿐 아니라 망사업자의 국내외 음란사이트와 음란물 원천 차단 확대, 형사조치

## 정부·포털 '음란물과 전쟁'

### 모니터 강화·형사조치 등 대책 마련

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부는 포털이 음란물 노출을 의도적으로 방치할 경우 관계법률에 따

라 직접 업체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포털업체가 관련 법률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게시자도 같은 범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야후·다음 등 주요 포털이 음란물을 6~7시간 방치한 것은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소홀했던 탓"이라며 "동영상 UCC만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 인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환뉴스

## 전남경찰, 히로뽕 밀매·투약 5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히로뽕을 밀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전모(39)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중국 엔타이(烟台)에서 인천항을 드나드는 한 조선족 보따리장수로부터 히로뽕 5g을 구입, 김모(31)씨 등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과 별도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타인명의 통장(속칭 대표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히로뽕을 구입·투약한 박모(2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56건에 80명이었으며, 이 중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30건 46명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여고생 성폭행 사주

### 3명 구속·9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인터넷을 통해 성폭행을 사주(본보 3월23일자 7면)한 광주 S고 1년 김모(16)양 등 2명과 실제로 성폭행 한 이모(17)군 등 모두 3명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9명은 불

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당초 "김양 등에 의해 3일간 감금당했다"는 A양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이 김군 아파트 옥상에서 잠을 잔 후 18일 새벽 5시께 나온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A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친구들을 만나며 생활한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 폐기 軍택주 3만여 상자 유통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유통기한을 넘긴 주한미군 남품용 수입택주 3만3천여 상자(225t)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국내 유통업소에 팔아넘겨 22억 원을 챙긴 주한미군 교역처 직원 유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연환뉴스

## 공갈범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범

○오토바이를 훔친 10대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공갈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

○25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5)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L아파트 뒤 공터에서 박모(16)군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 끌고 가는 것을 보고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박군은 20만 원을 뜯어낸 강씨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9급 공무원시험 [일반행정] 합격책임제 모집**

정원 30명! [제1남성반:10명] [제2여성반:10명] [남여동반:10명] **개강 4월 9일 입학 7월 1일**

<b>9급 합격보장반</b> (성균관고시필) 06-07명간합성제특약	<b>수강생 의무사항</b>	<b>수업생 특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9급 합격보장반</li><li>2. 성균관고시필</li><li>3. 06-07명간합성제특약</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9급 합격보장반</li><li>2. 성균관고시필</li><li>3. 06-07명간합성제특약</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9급 합격보장반</li><li>2. 성균관고시필</li><li>3. 06-07명간합성제특약</li></ul>

**메가 고시학원** 226-5050